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14.(월) 11:00
(지면) 2026. 9. 15.(화) 조간

배포 2026. 9. 14.(월) 06:00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돕는 인력양성 거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 훈련센터 첫발

- 9월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인도네시아 공동 훈련센터 개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15일(화)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국내기업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현지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훈련센터(Korea-Indonesia Offshore Plant Service Training Center, 이하 KIOS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노후 해양플랜트 설비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기술이 필요하여 숙련된 작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해당 국가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 산하 산학연 ETRS(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Support) 센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교통부와 협의하여 KIOS센터를 구축하게 되었다.

센터는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설치·해체 공정, ▲주요 설비·부속품 유지보수, ▲화물 운송 등을 교육한다. 2029년까지 실무교육 및 학위 연수 등을 통해 약 24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ODA) 사업: 43.6억 원, '25~'29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KIOS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국내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등 현지화 과정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라며, “국내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민석 (051-773-5240)
		담당자	사무관	안숙현 (051-773-5664)